

찾는사람 많다는데... 침체 여전한 총장로

동명동·문화전당 인기에 유입 늘었지만 10~20대 소비 급감 5층 건물 갤러리존 2개 층만 운영... 상가 공실률 30% 육박

광주의 중심상권으로 꼽히던 동구 총장로 일대가 유동인구가 크게 늘어나는 '호재'에도 상인들 사이에선 '장사는 역대 최악'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상가공실은 여전히 많고 유동인구에 비해 실제 소비는 이뤄지지 않으면서 옛 명성과 달리 침체를 겪고 있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상권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총장로 일대 상인회 등에 따르면 동구 급남로와 총장로 일대 유동인구가 크게 증가했다. 인근 동명동과 양림동에 새로운 상권이 조성된데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서면서 그 중심인 총장로 상권을 관통

하는 유동인구도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상권의 최우선인 '걸어다니는 유동인구' 증가에도 일대 상인들은 '장사는 예전만 못하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유동인구가 늘어도 실제 소비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총장로 상권을 지나가는 사람들 상당수가 10~20대 젊은층으로 장기화된 불경기로 소비자가 크게 위축된데다, 지방선거도 겹치면서 '역대 최악의 불경기'라는 하소연까지 나오고 있다.

총장로의 한 옷가게 사장은 "가게 앞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2~3년 전보다 크게 늘어난 게 사실이지만 실제 옷을 구매하는 사람은 더 적어졌다"며 "임대료와 인건비

가 오르면서 사실상 상인들이 체감하는 매출은 최근 몇 년간 최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총장로 상권 한가운데 위치한 5층 짜리 건물 '갤러리존'은 전성기 때 입주한 점포가 450여 개에 달하는 대규모 쇼핑센터로 꼽혔지만 이날 현재 지하와 1층을 제외하고 점포 운영이 없다시피 하는 등 활력을 잃어버린 상황이다. 게다가 총장로와 급남로 일대 상가 공실률 역시 30%에 육박할 만큼 상권활성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사를 시작할 때 상가 입점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유동인구'가 충족됐음에도 오히려 매출은 떨어지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데다, 지역특성상 동구의 자영업 비율이 80~90%에 달한다는 점에서 대박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총장로 상권을

'그저 지나가는 길목'으로 놔둘 게 아니라 소비가 발생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동구는 거주민이 적고 연령도 높아 기본적인 소비가 적기 때문이다. 정주여건을 개선해 거주하는 인구를 늘리는 것은 물론, 동구 일대 문화자원을 활용해 관광객들이 숙박하고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소비가 발생하고 곧 상권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박진석 JS건설링 대표는 "총장로 인근 계림동 재개발로 인구가 유입되면 총장로 상권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오래된 광주의 중심지'라는 동구의 특성을 살린 문화·역사·여행 콘텐츠 개발 등 숙박환경을 조성해야 활발한 소비가 이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68.83 (-1.32) 금리(국고채 3년) 2.22 (0.00)
 ↓ 코스닥 875.04 (-1.51) ↑ 환율(USD) 1077.20 (+2.00)



중소벤처부 中 광주총영사 초청 상담회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청(청장 김진형)은 12일 메인비즈 광주전남연합회(회장 오경규)와 공동으로 쉰시엔위(孫新宇) 중국 광주총영사를 초청해 기업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메인비즈 광주전남연합회 소속 10여개 회원기업 등은 상담회에서 한-중 관계가 복원된 이후 대중국 수출 또는 진출에 관심이 많은 기업인들의 질의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들은 상담회를 통해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들의 중국진출전략을 모색했다.

김진형 청장은 "간담회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중소기업들의 대중국 수출지원에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은행, 캄보디아 해외봉사 현지인 백내장 수술·도서 1000권 등 지원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지난 5~10일까지 캄보디아에서 해외봉사활동을 펼쳤다. 창립 50주년을 맞은 광주은행은 지역사랑봉사로 7명과 JB지주 계열사 봉사단 8명, 지역 대학생과 캄보디아 현지의 JB지주 계열사인 프놈펜상업은행 직원, (사)아시아희망나무 봉사단체와 함께 다채로운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펼쳤다.

특히 아이안과 서정성 원장 외 5명의 의료진이 봉사활동에 함께 참여해 안질환을 비롯한 각종 질병을 치료했다.

광주은행은 백내장을 앓고 있는 38명의 현지인들에게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수술비용을 전액 지원해 실명 위기에 처해있던 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다.

이외에 저소득가정 어린이와 청소년 무료급식을 배식하고, 프놈펜 한국국제학교에 동화전집을 비롯한 1000권의 도서를 전달했다.

/최재호 기자 lion@



휘발유값 두달만에 하락

l 당 평균 1610.24원

연일 치솟던 휘발유 가격이 근 두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의 일일 가격동향에 따르면 국내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보통 휘발유 가격은 지난 7일과 8일 l 당 평균 1610.24원으로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한 뒤 9일과 10일에는 각각 1610.19원, 1610.14원으로 떨어졌다.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이 전일 대비 하락한 것은 지난 4월 13일 이후 58일 만에 처음이다. 휘발유 가격은 4월 중순 1550원 안팎에서 형성됐으나 이후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리며 5월 26일 처음 1600원을 넘어선 뒤 지난주 후반까지 계속 오름세를 보였다.

경유 가격도 지난 8일 평균 1411.09원을 정점으로 하락 반전했고, 실내 등유도 9일 939.01원까지 올랐으나 이튿날에는 938.97원을 기록하면서 모처럼 떨어졌다.

/연합뉴스

해외 직구 피해 1년새 3배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국내 휘발유 가격 하락세가 추세화할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국제유가가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중산 논의 등으로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기존 유가 상승분이 시차를 두고 국내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국 주유소의 주간 휘발유 가격은 이달 첫째 주 l 당 평균 1천609.7원으로, 전주보다 4.7원 올라 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연합뉴스

해외 직구(직접구매) 활성화로 국제거래가 확대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국제거래 소비자상담이 지난해 1463건으로 2016년(361건)보다 305%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의류·신발 등 해외 직구 물품 피해뿐 아니라 숙박, 항공권 등 서비스 관련 피해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연합뉴스

빛으로 연명하는 자영업자

5월 대출 한달새 2조1천억원 ↑ ... 증가속도 역대 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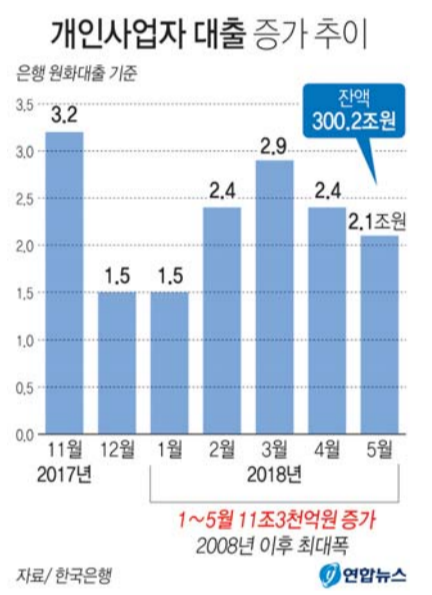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하지만 개인사업자(자영업자) 은행 대출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2018년 5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은 300조2000억원으로 한 달 사이 2조1000억원 늘었다. 개인사업자 대출이 300조원을 돌파하기는 처음이다.

증가속도도 역대 가장 빠르다. 올해 1~5월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액은 11조3000억원으로, 2008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같은 기간 기준으로 가장 많다. 2016년(8조5000억원), 2017년(8조9000억원)만 해도 9조원 미만이었던 것이다.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는 일부 은행이 중소기업 대출 영업을 강화한 탓이 있다. 부동산 경기 호황에 힘입어 부동산·임대업을 중심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이 늘어난 점도 배경이 됐다.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가 작용했다는 지적도 있다. 가계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 개인사업자들이 사업자 명의로 돈을 빌리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하고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세는 가팔라졌다는 것이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3월



말부터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 잡기에 나섰다.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은 3조6000억원 늘어난 650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5월 누적으로는 18조7000억원 늘어 지난해(19조2000억원)보다 증가속도가 둔화했다. 대기업대출은 156조9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1조2000억원 증가했다.

/연합뉴스

"어려운 이웃에게 꿈과 희망을!"

전기사랑 봉사단의 전기사랑 실천은 앞으로도 계속 됩니다.

2018년도 전기사랑 봉사활동	일자	장소	일자	장소
	3/23	담양군 창평면	4/27	목포시 일원
	5/25	무안군 무안읍	6/29	보성군 (예정)
	9/28	순천시 (예정)	10/26	여수시 (예정)
	11/30	영암군 (예정)		

전남전업인 장학회의 후학양성 사업도 계속 됩니다.

2018년도 장학 현황	학교명	학과	인원
	조선이공대학교	전기과	1
	목포과학대학교	전기과	1
	순천제일대학교	전기자동차과	1
	한영대학교	신재생에너지전기과	1
	한국폴리텍V대학교	산단전기공학과	1
	목포공업고등학교	전기과	2
	순천공업고등학교	전기과	2
	해남공업고등학교	전기과	2
	구림공업고등학교	전기과	2
	전남기술과학고등학교	전기과	2
	장성실업고등학교	전기전자제어과	2

"전기공사는 법에 의거 반드시 등록업체만이 시공할 수 있습니다."

-무등록자 시공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라남도회 회장 전 연 수 부회장 김 규 중

광주광역시 서구 대남대로 451 (3층) Tel : 062)364-0220 Fax : 062)364-0223